사회주의변혁을 보는 한국적 '준거틀'

학술단체협의회의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임영일

경남대교수 · 사회학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주의권의 격변을 보는 국내 연구자들의 시선을 일정부분 대표하고 있는 이 책은, 이른바 현실사회주의의 위기의 연원을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원지인 소련사회의 역사적, 현실적 문제상황에서 규명해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더불어 발동이 걸린 사회주의사회들의 '혁명적'인 격변과정과 그 잠정적인 결과들은 이제 자본주의의 미래 못지않게 사회주의의 미래가 다음 세기의 인류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분명히 해준다. 사회주의의 모범국으로 자타가 공인하던 동독은 이제 '소멸'해버렸고, 헝가리를 위시한 여타 동구국가들은 급속히 자본주의화의 길을 걷거나 혹은 격심한 동요 속에서 그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동구라파의 이 격변은 국가 그 자체가 완전히 소멸 혹은 파괴되거나 국가기구들이 전반적으로 무력화되는 속에서 '당'의 통제력과 헤게모니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혁명적'인 과정이다.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은 아직은 공산당이 국내 개혁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통제된(위로부터의) 혁명'으로서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려 하지만, 그들 자신도 그 앞날에 대한 전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더욱이 그 사회 외부의 관찰자들의 눈에는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미 '양날의 칼'을 손에 쥔 서투른 곡예사의 걸음걸이로 비쳐지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의 위기적 요소 분석

'위기에 처한 사회주의' 혹은 역설적이게도 '사회주의의 전반적 위기'로까지 표현되는 이러한 상황이 페레스트로이카 그 자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완강한 스탈린주의자나 트로츠키주의자의 주장은 일단 논외로 한다 해도, 현실사회주의가 지닌 위기적 요소들을 부정하지 못하는 한 이 위기의 연원을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원지인 소련사회의 내부적인 역사구조적 및 현실적 '문제상황' 혹은 '모순'에서 규명해보려는 노력은 '우리의 문제'를 염두에 둘 때에도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학술단체협의회'의 제3회 연합심포지움에 제출된 논문들을 모은 이 책은 참여자들의 노고에 값하는 우리 학계의 가장 중요한 올해의 성과의 하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에서 논자들 스스로가 정리하고 있듯이 제3부(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다.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정치, 경제, 철학적 측면에서의 이론적인 점검을 주로 시도한 제1부(사회주의 개혁의 근본문제),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의 구체적인 정책적 측면을 주로 검토하고 있는 제2부(사회주의개혁의 제측면)에 수록된 글들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북한을 포함한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의 실상에 대한 우리 학계의 정보나 인식수준이 아직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고, 나아가 일관된 이론적 전망하에서 이 문제를 조망해내는 일도 아직은 과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이 작업에 참여한 진보적 연구단체들의 공동작업자들이 기울인 노력의 의미를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산만하고도 현란하게 각개약진하고 있었던 여러 논객들의 논의들, 그리고 적절한 여과장치 없이 여러곳에서 앞다투어 발간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집들을 차분히 검토해볼 '준거'를 이 책에서 비로소 얻을 수 있었다. 읽는이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수개월에 걸친 공동작업을 통해 낮은 수준에서나마 획득(혹은 합의)된 연구자들의 '공통의 관점'이 책 전체를 통하여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우려의 눈길

급진파와 보수파의 양면적 공격의 와중에서 '당'의 통제력과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을 추진하려는 소련 공산당 중앙파의 안간힘에 대한 이 책의 논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매우 비판적이다. 이 비판의 핵심은 현실사회주의에 내재해 있던 모순의 집약적 표출로 인해 페레스트로이카가 점차 사회에 대한 국가(당)의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거나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실용적인 준거 위에서 '부정'하기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현실사회주의는 그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실천과정 속에서 실현한 값진 인류사적 '성과'의 측면과 더불어 주로 자본주의 진영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노정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의 측면을 공유한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 '실패'란 스탈린의 '戰時 사회주의' 이래 체질화된 국가와 당의 계급적 성격의 소멸 내지 변질 – 프롤레타리아로부터 '자립화'된 노멘클라투라의 국가와 당 – 이 초래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왜곡을 그 한 내용으로 하고, 그와 결부된 인민의 자발성과 창발성의 소진으로 인한 물질적 생산력 발전의 정체 내지 낙후를 그 다른 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책의 논자들은 전자의 측면을 우선시하면서 출발한 페레스트로이카가 후자의 측면이 갖는 잠재적인 '계급적 성격'의 발현과 그 압박에 의해 방향감각을 상실하면서 '통제된 혁명'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혁명'으로 치달을 위험에 주목한다. 현실사회주의가 계급모순이 지양된 무모순의 사회가 아니라는 인식은 이미 보편화된 것이지만, 개혁의 주도권과 지향이 '노동자나 콜호즈 성원의 기층부분'이 아니라 '고급 기능노동자와 개인기업가층과 사기업적 협동조합 소유자층' 혹은 '자영업자 · 과거 암시장의 사업자들 · 전문기술자 · 중하급 관리' 쪽으로 기울고 있는 현상은 현실사회주의가 그 '실패'의 치유과정에서 오히려 '성과'의 측면까지 송두리째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된 문제의식 위에서 이 책의 논자들은 농업, 법, 지역(민족)문제, 언론, 여성정책, 나아가 문예정책에 이르기까지(2부의 논문들) 페레스트로이카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심각한 우려의 눈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 및 이념 사회주의의 미래

이들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이미 돌이키기 힘든 현실이 되어 있음은 승인하지만 그것의 '미래'는 이제 더이상 고르바초프에게도, 중앙파에게도(따라서 '당'에게도) 있지 않다고 본다. 페레스트로이카의 미래는(따라서 사회주의의 미래는) 이제 다시 소련사회에서의 '노동계급'의 진출과 성장의 향배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 이러한 입장은 김세균 교수도 이미 제시한 바 있다(「한겨레신문」 90년 3월10일자) – 70년 이상의 실천경험을 쌓아온 사회주의의 이념이 이제 다시 사회주의 '증손자 세대'(쿠진스키의 표현) 노동계급의 새로운 '대중적 진출'에 소생의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는 기막힌 처지에 대한 전망으로서는 이는 솔직히 말해 다소 무책임하다.

이 점에서는 오히려 현실사회주의가 그동안 이룩한 인류사적 성과들(신분적 · 계급적 착취와 억압, 제국주의, 가난, 기근, 질병, 실업, 문맹, 성차별, 도덕적 타락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에의 전망)을 정당하게 높이 평가하면서, 그리고 그들 사회에서의 최근의 변화를 냉정히 승인하면서, 오손되지 않은 이념사회주의의 전망을 이제 '자신의 과제'로 끌어안으려는 다음과 같은 한 '제3세계' 논자의 의연한 자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제3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전략을 채택할 수 있게 도움준 국제적 조건들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을 강요한 조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 이들에게 있어 문제는 사회주의적 발전인가, 자본주의적 발전인가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자립인가 자본주의적 종속(주변화)인가의 선택이다 – 단순한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생동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까지도 모색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는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다"(Carlos M. Vilas, "Is Socialism still an Alternative For The Third World?", *Monthly Review,* 90년 7-8월호) 한울 / A5신 / 592면 / 8500원